

‘과학영재’ 이공계 기피 사라졌다

광주·전남 과학고 올 졸업생 99% 공학·자연계 진학

의학계열 단 1명 불과...설립 취지 살아나

광주과학고와 전남과학고 졸업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과학고 출신의 특성을 살려 이공계열이나 자연계열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전만해도 과학고 졸업생의 30% 이상이 의대나 치대 등으로 진학해 순수 이공계열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의 운영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떠올리면 급격한 변화다.

앞으로도 이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과학고의 설립 목적에 맞는 진학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습활동을 통해 전공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 숙제로 남게 됐다.

광주과학고와 전남과학고의 2008학년도 대학 입시 합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올해 졸업한 171명의 99%인 170명이 이공계열의 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 1명만이 의·치의학계열로 진학했다. 전체 졸업생의 79%인 136명은 공학계열로, 20%는 자연계열로 진로를 결정했다.

이처럼 의대로 진학하는 과학고 졸업생들이 줄어든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 등 대입 전형에서 과학고 졸업생이 의대에 진학하는데 이점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의학 전문대학원이 개설되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의대로 갈 수 있는 정원이

2008학년도 과학고 졸업생 전공 선택 현황 (단위:명)

계열	광주 과학고	전남 과학고	계
공학	76	60	136
자연	23	11	34
의·치학	0	1	1
계	99	72	171

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광주과학고를 졸업한 2·3학년 학생 99명 중 카이스트로 진학한 학생은 28명이었고, 포항공대에는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서울대 입학생 9명도 화학생명공학, 기계항공 등 대부분 이공계열을 선택했다. 의·치의학계열 학과로 진학한 학생은 없었으며, 의학계열과 비슷한 약학계열 진

학성이 서울대 약학과 1명, 전남대 약학과 1명 등 모두 2명에 불과했다.

전남과학고 역시 졸업생 72명 중 카이스트 13명, 포항공대 4명, 한양공대 15명 등 이공계열을 선택한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단 1명만이 인제대의대를 선택했다. 이들이 선택한 전공은 산업공학, 신소재공학, 수학, 전기전자공학, 반도체시스템공학 등으로 다양했다.

광주과학고 최윤길 교감은 “대학 진학의 패턴이 바뀌면서 이제 의대를 목표로 과학고에 진학하는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공계열의 더욱 다양한 학과를 찾아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이번엔 ‘지렁이 빵’

광주 편의점 제품서 발견

‘생쥐머리 새우깡’ ‘칼날 참치캔’ ‘컵라면 벌레’에 이어 이번엔 단팔빵 속 앙금에서 지렁이(원내 사진)가 발견됐다.

24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우산동 M 편의점에서 송모(38·남구 월산동)씨가 구입한 (주)S식품 단팔빵 속에서 지렁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송씨는 “간식으로 산 빵을 먹던 도중 지렁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보여 북구청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송씨로부터 단팔빵을 수거한 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이물검사’를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 이물질은 죽은 지렁이가 구부러진 채 들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으며, 크기는 길이 3.5cm·폭 1~2mm 정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수거된 빵과 검사결과를 S식품 본사에 위치한 경기도 시흥시에 통보해 행정조치 하도록 할 예정이다.

S식품 측은 이날 소비자 신고가 접



수된 뒤 오전 11시께 같은 종류의 제품 생산을 중단했으며, 편의점과 슈퍼 등 유통업체에 판매된 4만개의 제품을 리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음식물 안에서 이렇게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인체에 해를 어느 정도 끼치는지를 떠나서 철저한 역학조사가 이뤄진 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나원침 (7466) 김중두



다 중의 건축·산업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저렴 및 상담만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방 : 061) 337-0571

잠든 취객 도와주자 되레 주먹질

○광주지역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잠을 자던 40대 취객이 자신을 도와 준 30대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4일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김모(49·서구 농성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찰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3시45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O 노래방 화장실에서 잠을 자던 손준박모(여·33·서구 금호동)씨가 들어와 “아저씨, 얼른 일어나세요”라며 깨우자 일어나 자신의 발로 박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노래방이 끝난 뒤 화장실에 불임을 보러 갔다가 잠이 들었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

/이중형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 첫 모내기 전남도내 첫 모내기가 24일 순천시 해룡면 선월마을 허만재(55)씨 는 3천여㎡에서 실시됐다. 올해 전남지역 모내기는 지난해보다 5일 앞당겨 이뤄졌으며 이르면 오는 7월 말 수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학교 절반이 ‘과밀 학습’

광주시내 초·중·고교 상당수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적정인원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학교는 학교 운영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특수학급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은 24일 열린 제165회 시교위 임시회 질의를 통

해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리나라 학급의 적정 학생수는 35명인데 광주시내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73곳, 고등학교 50곳 등이 평균 36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학교수의 48.8%에 달했다”며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학교도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1곳 있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학교 신설과 학구 조정, 교실 증설, 교원 법정정원 수 확보 등 다각적인 처방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장휘국 위원은 “특수학급 예산으로 학교 운영비의 1%를 확보하도록 한 지침을 어긴 학교는 광주시에 초등학교 40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2곳이 있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5세 아파트 추락사

24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J아파트에 사는 J(5)군이 19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목격자는 경찰에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나 가봤더니 어린이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J군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으며, J군의 할머니는 손자의 과자를 사러 잠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형기자 golee@

유흥업소 행패·공짜술

조직폭력배 잇단 검거

유흥업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공짜술을 마신 조직폭력배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집기를 부수며 행패를 부린 광주지역 S폭력조직배 최모(34)씨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동료 한모(36)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서부경찰도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내가 조폭인데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면서 술값 230만원을 내지 않는 등 두 달 동안 5회에 걸쳐 술값 600만원을 주지 않는 서모(26)씨 등 3명을 공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광산경찰도 이날 유흥주점에서 250만원의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폭행한 광주 S폭력조직 김모(27)씨 등 2명을 폭력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필상기자 kps@

광주MBC 문화방송

무인 + + 황주 황산 직행

2008년 4월 14일 ~ 5월 17일 (매주 화, 목, 토)

무인 + + 장사장계 직행

2008년 4월 22일 ~ 5월 27일 (매주 화, 목, 토)

1회 10,000원 ~ 10,000원

2회 10,000원 ~ 10,000원

3회 10,000원 ~ 10,000원

4회 10,000원 ~ 10,000원

5회 10,000원 ~ 10,000원

6회 10,000원 ~ 10,000원

7회 10,000원 ~ 10,000원

8회 10,000원 ~ 10,000원

9회 10,000원 ~ 10,000원

10회 10,000원 ~ 10,000원

문의: (062) 226-6070